# 삼성증권 제22917회 주가연계증권

## 1. 최초기준가격 안내

삼성증권 제22917회 주가연계증권의 최초기준가격이 2019년 10월 31일에 확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
최초기준가격 결정일자	KOSPI200	HSCEI	S&P500
2019년 10월 31일 종가	275.820000	10,533.240000	3,037.560000

### 2. 상품개요

기초자산	KOSPI200, HSCEI, S&P500	
발행일	2019년 11월 01일	
개요	3년/6개월,(90,90,85,80,75,62.5)%,세전 연 4.4%	

#### 3. 상품구조

구 분	상 환 조 건	수 익 률 (세전)	
자동조기상환	각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가 모두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 <b>연 4.40</b> %		
	각 기초자산의 최종기준가격이 모두 <b>최초기준가격의 62.5</b> % 이상인 경우	13.20% (연 4 <i>4</i> 0%)	
만기상환	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최종기준가격이 <b>최초기준가격의 62.5%</b> 미만인 경우	원금 × [하락률이 가장 큰 기초자산의 최종기준가격/최초기준가격] 지급 (원금손실발생: -100% ~ -37.5%)	

## 4. 관련일정 및 가격

	관련일자	상환시 수익률	행사가격			
구분			최초 기준가격 대비	KOSPI200	HSCEI	S&P500
최초기준가격	2019/10/31	-	-	275.820000	10,533.240000	3,037.560000
1차 중간기준가격	2020/04/29	2.20%	90%	248.238000	9,479.916000	2,733.804000
2차 중간기준가격	2020/10/30	4.40%	90%	248.238000	9,479.916000	2,733.804000
3차 중간기준가격	2021/04/30	6.60%	85%	234.447000	8,953.254000	2,581.926000
4차 중간기준가격	2021/10/29	8.80%	80%	220.656000	8,426.592000	2,430.048000
5차 중간기준가격	2022/04/29	11.00%	75%	206.865000	7,899.930000	2,278.170000
최종기준가격	2022/10/31	13.20%	62.5%	172.387500	6,583.275000	1,898.475000
지급일	중간기준가격 결정일(불포함) 또는 최종기준가격 결정일(불포함) 이후 <b>3영업일</b> (ELS의 중도(만기)상환금액 지급이 있는 경우 이 특정금전신탁도 그 지급일의 다음 영업일에 자동해지하여 상환 금액 지급)					

## 5. 환매(중도상환) 안내

중도 상환 요청가능일	[ <b>발행일](불포함)</b> 이후 매 영업일		
기준가 적용 기준시각	오전 11시(서울시간 기준)		
중도상환금액 결정일	<1> 중도상환 요청일 기준시각 이전 중도상환 요청한 경우 : 중도상환 요청 당일. 단,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, 중도상환 요청일 (불포함) 후 [1]거래소영업일 <2> 중도상환 요청일 기준시각 경과 후 중도상환 요청한 경우 : 중도상환 요청일(불포함) 후 [1]거래소영업일		
중도상환금액 지급일	중도상환금액 결정일(불포함) 후 [2]영업일. 단,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에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의무 또는 만기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지급일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. (ELS의 중도상환금액 지급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의 다음 영업일에 신탁 지급 가능)		
중도상환금액의 수준	<1> [발행일](불포함) 이후 [2020년 04월 29일 (6 개월)](포함) 이전까지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: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후 [1]영업일에 공시되는 평가금액의 96% 이상의 가격 <2> [2020년 04월 29일 (6 개월)](불포함) 이후 만기일(불포함) 이전까지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: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후 [1]영업일에 공시되는 평가금액의 98% 이상의 가격 * 중도상환 시 결정된 상환금액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		

#### ※ 알려드립니다.

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유동성이 제한됩니다. 또한 기초자산의 변동 및 발행사의 사정에 따라 원금손실 또는 원금전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